

케이블TV가 흔들린다

교육전문 케이블TV인 다솜방송(채널26·대표이사 서한샘)이 5일 최종부도를 냄에 따라 엄청난 적자에 따른 숨을 몰아쉬고 있는 케이블TV 업계가 잇단 부도위기에 휘말리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96년말부터 방송을 시작한 2년째인 다솜방송은 경영난으로 인해 1년전부터 세모·성원그룹 등과 매매협상을 벌였고, 장르 변경을 모색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부심해 왔으나 경제한파로 실패했다.

이번 다솜방송의 부도는 케이블TV 업계의 비상을 의미하는 신호탄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와 같은 견해는 한국케이블TV협회(회장 조경목)가 2월7일 대통령직인수위 사회분과위에 보고한 현황이 잘 뒷받침 해주고 있다.

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29개 프로그램사업자(PP)들이 개국후 97년까지 기록한 누적적자는 6천5백2억 원, PP중 자기 자본을 잠식한 곳은 현대방송(HBS) 여성채널 G TV 등 8개사에 이르고 빚만 해도 총 3천7백66억 원이다.

여성채널 G TV는 이미 법원에

화의 신청을 내고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상태며 교육채널 DSN도 10일 (주)재능교육에 55억 원에 매각했으며 대기업 계열인 DCN(대우) 캐치원(삼성)도 모기업 지원이 줄어들어 감원을 통한 구조조정을 하는 등 대부분의 케이블TV가 어려움을

채널 중복-부채 누적 원인 '다솜' 부도-GTV 화의신청 btn도 겨우 명맥 유지

겪고 있다.

이번 다솜방송의 부도에 대해 케이블TV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중받은 은행 어음 결제 만기일이 3~4월인 PP들이 많다"며 "이런 실정이라면 연쇄부도의 파장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교계의 케이블TV 방송사인 불교TV(사장 정우성)도 어렵기는 마찬가지. 지난 2월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재원조달의 어려움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3월21일 중

원 파이낸스에 지불하기로 돼 있는 20여억의 부채를 일부만 상환한채 조속한 시일내에 갚는다는 조건으로 연기시켰으며 대동은행에 4월10일 상환예정인 부채도 잠정적으로 유예시키는 등 간신히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는 상태다.

불교TV는 별 볼이 없는 대박은 없지만 공중파와 지역민방 등에 프로그램 판매사업을 추진하는 등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교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실정을 언제까지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느냐는 자문을 하고 있다. 같은 종교방송인 기독교TV도 총 1백30여억 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조재구 사업지원국장은 "중계유선방송국과 종합유선방송국(SO)이 통합되거나 단일사업화 한다던 케이블TV의 유료 가입자는 6백만~8백만 명으로 늘어날 거"라며 "이렇게 되면 가입 시청자수의 증가로 케이블TV 업계의 승풍이 다소나마 트일 것"이라는 해를 제시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영화 '성철' 금강산 로케 추진

성철스님의 일대기를 조명한 영화 '성철'(감독 박철수)이 금강산 등 북한 촬영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80%의 촬영을 마친 박철수 감독은 "성철스님이 금강산에서 수도를 하는 장면만큼은 꼭 북한 금강산에서 촬영하고 싶다"며 "북일부와 불교계 민간단체 등을 통해 남북촬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화 '성철'은 북한 촬영을 보충해 부처님오신날 개봉한 뒤 국제영화제에 출품할 계획이다.

불교방송 구조조정 착수 노조 '고용보장' 철야정진

불교방송(사장 상낙)은 12일 부장급이상 15명에 대한 일괄 사표를 받고 다음주 중으로 선별수리키로 하는 등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한편 여섯 차례에 걸쳐 회사측과 협상을 벌여온 불교방송 노조는 12~14일 불교방송 3층 대강당에서 '고용안정 보장'을 요구하는 1080명 철야정진을 했다.

신행수기 당선작

특별상(중단협회장상)

아니, 미국까지 와서 ③

이 혼을 당한 나는 온 밤을 하얗게 지새며 '왜?' 라는 질문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다. 참회, 아스라이 보이는 인연의 끈. 모두 내 과거생의 업으로 돌리며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온통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처럼 느껴져 지푸를 쓰러들었다. 울고 바른 생활, 결격사유 없는 사회인, 가정, 자녀교육 등 어느 한가지 부끄러움이 없기 위해 노력했던 생활은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이러한 치욕적인 삶의 기로에서 밤이면 참회의 통곡으로 내 안에 가득한 원망과 미움의 독기를 뽑아내기 위해 '관세음보살'을 불렀다. 그것이 영혼의 출몰 모르고... 미움과 원망을 갖지 않는 인연법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내 감정에 깊숙히 박혀있는 원통함을 쉽게 빠져 나오지 않았다.

피겨가들, 그들은 미움의 대상이 아님을 알았다. 나를 아프게 했지만 그 아픔으로 원망과 미움을 치유할 수 있는 부처님 법을 만났다. 모두가 불성을 지닌 인간들이지만, 탐·진·치 삼독에 가려서 바른 견해와 바른 사고를 가지지 못하고 바른 언어를 쓰지 못하고, 바른 행동을 할 수 없다면, 그들은 오직 기껏하게 여길 평생일 뿐인 것이다.

여명을 밝히는 빛을 따라 침대에서 일어나 나는 맑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렀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불 위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내렸다. 그렇게 눈물이 흐르게 되었다. 비참하거나 슬프지 않은 어떤 환희의 눈물인지도 모를 울음을 오래도록 울었다. 누군가 내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느낌을 받으며 눈물을 닦았다.

이 세상 그 어느것도 내 소유가 아님을 깨닫고 욕심의 고통에서 벗어났다



그림·이준석

"하나님의 사랑, 부처님의 자비가 이렇게 질실할 수가 없어요. 내 죄를 사랑으로 감싸 줄 수는 없을까요."

"네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자격이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뭐지나 알고 말하느냐. 너는 저주받은 X이다." 교회 다니는 동서한테 했던 하소연을 전해주고 50년도 넘게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신 시어머니는 그렇게 내귀가 멍할 정도로 크게 답해주셨다.

그것은 가슴 에이는 아픈 말이었지만, 나에게서 원망과 미움의 골레를 벗기는 예리한 칼이 되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며칠을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던 나에게 그 소리는 오히려 위로의 말이 되었다. '감히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른다는 것, 나는 저주 받은 사람이라는 것.' 나는 그말의 화두에 걸려 맞날 며칠을 보냈다. 그리고 그 생각에 집중되어 밤을 밝히던 어느날 새벽 어스름을 맞으며 내 육신의 무게를 느낄 수 없는 이상한 상태를 경험했다. 것보다 더 가벼워진 육신, 내가 없는 것 같은 상태의 나, 그리고 맑게 벗겨워진 원망과 미움의

그후, 늘 자신의 예기치못했던 처지에 왜소해지던 마음이 조금씩 제 자리를 찾았다. 그리고 나는 단지 일반적인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 독특함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었다. 부처님법이 아니었다면 감히 짐작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의 깊은 뜻을 되새기고 또 되새겼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도(가정, 자식, 재산) 내 소유물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소유욕에서 비롯된 욕심의 고통도 그래서 벗어날 수 있었다. 부처님 법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생각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 눈물감도록 고마운 불법이다. 수승한 부처님 법을 만났기에 행복하다.

김연장 (미국 뉴욕시 거주)

즐거움 가득한 천상에 살아

불화와 성화비고 33장면

천녀와 천사

불화와 성화에서는 천녀(천사)가 많이 나타난다.

◇일본 西福寺 소장 고려 관경십육관변상도(1300년 전후 제작 추정)중 부분. 천녀가 꽃을 들고 천의를 휘날리며 날고 있다 (사진 위).

◇판투리치오 작 '그리스도의 세례'(1481~1483년) 중 천사(부분도). 이 작품에서 아래 위는 날개, 아래는 천의가 달려 천사의 날개 변형을 보여주고 있다.

천녀는 천의(天衣)를 입고 악기나 아름다운 꽃 또는 기이한 음식이나 과일을 들고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놀지 않고 괴로움이 없고 즐거움만 가득한 천상에서 산다. <장야함경>에서는 질투를 멀리하고 보시를 많이 한 공덕으로 천상에 나서 천녀가 되는데 그 즐거움이 한량이 없다고 묘사되어 있다.

성화에서 날개를 단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많이 표현되는 천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 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맡는다. 초기 그리스도 미술에서는 날개없이 천의를 걸치고 있는 천사들이 등장, 불화에서의 천녀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 15세기 이후 그림의 천사들은 대부분 날개를 달고 있다. 학림(예전 법화당 주지)



PCS 016을 쓰시면 1년에 20만원이상 절약됩니다.

(월100분 사용기준)

이용기간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할인율	5%	10%	15%	20%

번호를 지정하시면 20%가 더 할인됩니다
3개 번호까지 자주 쓰는 번호를 지정하시면 그 번호의 통화요금은 20%이상 할인됩니다 (월사용료 2,000원 별도)

구분	요금
기본료(월)	16,500원
통화료(10초당)	평상(19원) 할인(15원) 심야(10원)

작은 선택만으로 불국토를 만들어 가는

PCS 016 「부다피아 포교기금」

통화료의 5%는 통일포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부다피아 포교기금」 조성을 위해 스님들과 불자님들을 대상으로 특별할인 판매합니다.

부다피아 포교기금이란?

PCS 016 가입시, 「부다피아 포교기금」으로 신청만 하시면 최고의 이동통신서비스를 받으시면서 불국토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실 수 있습니다. 고객에겐 조금의 부담도 없이 사용 통화료의 5%가 「부다피아 포교기금」으로 적립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금은 전문 단체를 통하여 통일 포교와 불우 이웃 돌봄으로 쓰입니다.

「부다피아 포교기금」이 꿈꾸는 세상, 모두가 하나되는 부처님 나라

주관: 현대불교신문사
후원: 한국통신프리텔, 우리민족돕기불교운동본부, 소적새마을, (사)감로심장회

신청서 접수처

우편번호: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희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부다피아 포교기금」
☎: (02) 732-1522, 737-8881,
FAX: (02) 737-0697 (02) 737-0698, 0696

특가 판매

■ LG LGP 1300
■ 현대 걸리버 1100
■ 삼성 애니콜 1100, 2000
시중 최저 가격!
* 98년 3월 가입자에 한하여
특가판매와 440분의 무료통화 시간을 드립니다.

소리가 보인다
PCS 016